

2019년 세계해사의 날을 맞으며

2019년 세계해사의 날을 맞으며 주체 108(2019)년 9월 26일 국가해사감독국의 주최로 설명회 《해사공동체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가 진행되었다.

여러 기관들에서 일하는 해사일군들이 참가한 설명회는 김영길 국가해사감독국 국제기구사업처 처장의 개막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나라의 해사감독정책집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 해나가고있는 우리 여성해사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지난 시기 여성해사일군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국가해사발전5개년전략실현의 마지막해인 다음해 투쟁에서도 여성해사일군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설명회에서는 국가해사감독국 여성정무원들과 조선선급협회와 중앙해상환경보호조정소 여성연구사들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2015년과 2017년, 그리고 올해에 진행된 아시아여성해사일군협회 회의들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대표단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올해 4월에 열린 말레이시아회의에 참가하였던 여성해사일군들의 토론은 많은 회의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들은 토론에서 말레이시아회의에 참가하여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해사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얻은 경험과 성과, 해사기술양성사업과 기술협조의 세계적추이, 그와 관련하여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제기되고있는 공동의 관심사들을 전반적으로 료해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여성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문제가 세계해사연관들에서도 주요토의의제들로 상정되군 하는 현실적요구에 비추어 우리 나라 해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대외에 널리 소개선전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받아들여 《조선해사부문 여성일군협회》의 사업을 보다 폭넓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적문제들이 토론되었다.